

언어구분 KOR

논문구분 원저/구연

논문분야 고관절

논문제목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한 양측 고관절 주위 골절

영문제목 **Sequential Hip Fractures in Osteoporotic Elderly Patients**

발 표 자 김창근

책임저자 임수재

저 자 임수재, 서유석, 이상혁, 김창근

기 관 명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

서론 : 고령에서 골다공증성 고관절 주위 골절로 치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순차적 양측 고관절 주위 골절의 임상적 형태를 분석하여 위험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고령에서 골다공증성 고관절 주위 골절로 치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순차적 양측 고관절 주위 골절의 임상적 형태를 분석하여 위험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결과 : BHF군과 non-BHF군의 평균 나이는 각각 78.4세(68-90세), 78세(58-99세)이었다. BHF군에서 처음 골절과 이차 골절이 발생한 시간적 간격은 평균 22.9개월(2-102개월)였으며 모두 낙상이 원인이었다. 두 군에서 수상 당시 BMD상 T-score ($P=0.276$), 주거형태 ($P=0.623$), 신경계 질환 이환 여부($P=0.180$), ASA 점수($P=0.3987$), 그리고 신체질량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$P=0.6285$). 골절 치료 후 1년 이상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한 환자는 BHF군에서 8명(22%), non-BHF군에서 254명(40.6%)로 두 그룹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($P=0.028$).

결론 : 고령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고관절 주위 골절은 주로 70세 이상에서 낙상에 의해 발생하였으며,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발생 위험을 낮추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acknowledgment :

고관절 골절, 골다공증, 순차적 양측성 골절, 골밀도